

‘폭염·폭우’ 이상기후...농산물값 다시 뚝다

생산·출하 차질 빚어 소비자 부담 ↑
광주, 배추 1포기 2주전比 40% 비싸
열무·상추·고구마·감자 등도 상승세
정부, 배추 방출 물량 2배 확대기로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주요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또 다시 폭등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출하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철 과일이나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먹거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카미스(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주지역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6천577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5천834원) 대비 12.7%, 2주전(7월24일·4천683원) 대비 40.1% 각각 올랐다.

배추값 강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배추뿐만 아니라 대부분 채소류 가격도 2주 전보다 비싸다. 열무 1kg 소매가격은 4천785원, 적상추(100g)는 1천540원으로 2주 전보다 각각 6.6%·30.3% 올랐다.

식량 작물인 밤고구마(1kg)와 감자(100g)도 5천603원·512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2%, 2.6% 높다.



한산한 전통시장 폭염·폭우가 교차하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7일 오후 서구 양동시장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카미스(KAMIS)에 따르면 광주지역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6천577원으로 조사됐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실제 이날 오전 찾은 북구의 한 마트에서도 장바구니 물가에 놀란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부 최모(40대)씨는 “가축과 1박2일 여행을 위해 고기, 야채, 과일 등을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20만원이 훌쩍 넘었다”며 “쌈채소가 비싼 거 같아 적게 담았는데 복숭아 2개에 1만원이 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냥 수박 반 통을 사서 간다”고 귀띔했다.

반면 당근과 무는 대체로 비축물량이 여유로운 편이어서 거래 가격이 내려갔다.

당근(무세척·1kg) 소매가격은 2천907원, 무(1개)는 3천125원으로 각각 1%·4.8% 저렴했다.

김건희 12일 오전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판가름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혐의

초유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채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는 심문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종료 후 판사의 검토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중요 사건의 경우 오전에 심사가 이뤄지면 당일 오후나 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

거나 이튿날 새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심사를 담당하는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이들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현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휴일 또 ‘최대 120mm 이상’ 폭우

기상청 “변동성 커...최신 정보 확인”

이번 주말·휴일 광주·전남에 또 한 번 폭우가 쏟아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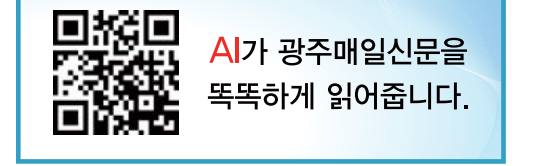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자정을 넘어 전남 해안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전 중 광주·전남 곳곳으로 확대되겠다.

9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mm다.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다. 비는 11일까지 내리고 그치길 반복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이번 강수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공급되는 다량의 수증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건조 공기가 만나 발생한 중규모 저기압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비가 내리기 전·후로도 무더위는 이어지겠다. 8일 최고기온은 30-33도로 예보됐다. 9일 분포는 소폭 하락한 29-31도로 전망됐으나, 비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높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는 조그만 차이로도 집중 지역과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Today	
전남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전국 최다	3면
동인선생 영경 강좌...‘수뢰둔’	15면
상위권 노리는 KIA 필승 해법은?	16면



해보려는 그 순간이 이미 센스니까

냉방할 때는 문을 꼭 닫아!!

26℃ 여름철 적정 온도 26도 준수하기!!

안 쓰는 개물 플러그 뽑아!!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니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